

한편, 철학전반이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 철학자들은 서구 일변도의 모방을 반성하고 보다 주체적인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강조하고 조작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서구 철학자들이 해 놓은 작업의 언저리를 맴돌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그들이 해보지 않은 시도들을 해가면서 그들과 생산적인 논의를 해가는 성숙함을 보일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미흡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적극적이고도 독자적인 시도들을 기꺼이 함으로써 기독교 철학의 풍성한 담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원이 본 연구를 착수하는 한 가지 숨은 바람임을 덧붙이고 싶다.

논문의 내용

I. 말놀이 Language-Game: 기독교 철학의 한 방법

II. 문법의 다양성

III. 교리와 교파의 다양성

IV. 다양성의 이해의 이해 방식

V. 한계: 상대주의

철학/02/발표논문/

전공교육 중심에서 시민교육으로 -인문 교양교육으로서의 기독교 대학의 역할

최한빈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기독교철학)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의 4년제 대학의 교육과정은 전공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한국 대학의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은 전공교육 중에서도 취업에 유리한 소위 인기 전공을 경쟁적으로 개설,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의 운영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바람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현실에 부합되지도 않는다.

교육적 정당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한국 대학의 전공위주의 교육은 일 중심의 문화, 일중심의 이념이 나온 결과이다. 노동이란 인간의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라 할 수 없다.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노동에 대한 긍정적 의미는 현대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점차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중심의 문화와 이념은 자본주의 발전에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취업에 유리한 전공 위주의 한국 대학교육은 자본주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자본주의가 부여한 노동의 중심의 이념이 실제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실제 노동은 그 자체로 목적화 되지 못하고 점점 더 수단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중심의 교육과 지식도 점차 수단화 되어 고등교육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한국 대학은 고등교육의 대중화에 의해 위와 같은 교육의 효과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주제어: 고등교육, 전공교육, 노동, 취업, 자본주의

ABSTRACT

To Civic Education from Major Centralized Education

Choi, Han Bin(Baekseok University)

The most of curriculum on four years based college education in Korea consists of major centralized education. The private colleges which takes 80 percent of whole colleges are use to open job related classes. This is not suitable for higher education and real business world.

The major centralized education of Korean colleges which has no longer any justness and suitability is a kind of result of work centralized culture and ideology. The labor is the important factor in human life, but it is not the end of human life. The positive and special meaning of labor which took a important part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capitalism has declined in the contemporary capitalism. But the capitalism still needs the work centralized culture and ideology. The major centralized education of Korean colleges which may make things easier to get the job is corresponding to demand of the capitalism. The problem is that the work centralized culture and ideology does not work actually. Because the real labor tends to be means, not end. Therefore major centralized education and knowledge in Korean colleges tends to be means and withdraw from the end of higher education.

Key Words: higher education, major centraized education, labor, job, capitalism

전공교육 중심에서 시민교육으로 -인문 교양교육으로서의 기독교 대학의 역할

최한빈(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기독교철학)

1. 대학의 교육체제의 문제-학부제이나 학과제이나

최근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과거의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²²⁾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첫째, 과거 학부제 하의 전공교육의 부실화 둘째, 전공교육 강화의 현실적 필요, 셋째, 대학의 전공교육 편익주의 때문이다.

전공교육의 부실화는 1996년부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시된 학부제에서 비롯한다. 본래 학부제는 미국 대학들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체제로서 본래의 교육 목표는 학문의 통합 추세에 따라 폐쇄적인 학과 운영을 세신하고 다학문간의 연계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의 적성 발굴, 전공 및 진로를 탐색,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²³⁾ 이러한 이유로 학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 대학의 경우, 전공교육은 교육과정 중 30-40%를 점하고 있으며 일반선택과 교양이 나머지 비율을 채우고 있다. 이에 반해 학부제를 실시하는 한국 대학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필수 이수 학점이 높고 상대적으로 선택 학점이 낮았지만 이러한 자유 선택의 여지는 결과적으로 전공과목의 비중을 오히려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외국의 사례와 달리 한국의 학부제는 학과제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60%이상 전공교육에 할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대학들이 외형적으로는 학부제 교육체제를 도입했으나 실체는 학과제로 별반 다르지 않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일치는 학부제가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라 학과 증설을 통해 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대학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다. 사실 학부제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부제 교육 목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정의 개편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했으며 그 결과는 학부제 교육의 총체적 부실화 이르게 되었다.

학과제 회귀 현상의 두 번째 이유이자 학부제 교육의 부실화는 무엇보다 전문인 양성이란 한국 대학들의 현실적인 교육 목적에 있다. 전문인이라 특수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가진 자들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 직업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 대학의 현실적 교육목적은 전문 직업인 양성에 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우선 한국의 4년제 대학의 84%가 사립대(199개 4년제 중 150개가 사립대)라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 부담률이 OECD 가입국 1위라는 사실²⁴⁾을 고려하면 그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²⁵⁾ 이것은 교육

22) <http://news.hankooki.com/page/opinion/200906/h2009062302224776070.htm> (검색일 2011. 03.10)

한국일보 2009년 6월 23일 사실, “인제는 학부제가 최고라고 하더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87451> (검색일 2011.03.10)

연합뉴스, 2010년 1월 24일 기사, “학과 모집’ 대세…학부제 폐기처분되나”,

23) 신의순. pp.170-171

24) http://www.pncreport.com/oced/life.html?mode=view&code=h2b_OECDlife&uid=6.00&pnt=6&g=&lm=01 (검색일 2011.03.11)

OECD리포트, OECD 통계: 교육(OECD Factbook2010) [해설]한국, 사적 교육비 부담률 OECD 1위

재정100%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국공립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립대학들이 대학운영을 위해서 교육원리와 함께, 때로는 교육원리 보다 더 경영원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2008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생의 83%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서 대학들은 소위 경쟁력이 있는 학과, 즉 취업이 잘되는 전문직 배출 학과 교육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단계식-연계 교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년별 필수과목 또는 선수과목제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학부제는 기본적으로 연계교육과 전공 탐색 및 적성의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므로 필수교육과정 보다는 선택교육과정의 비중이 크다. 더욱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강의의 성격들은 대체적으로 개별적이다. 즉 다음 학기에 연계될 필요 없이 한 학기로 종결되는 강의 또는 한 두 시간의 강의로 종결될 수 있는 독립적 주제를 다룬 강의들이 학부제의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학부제에 충실할수록 과거의 학과제에 기초한 전공교육은 약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전공교육에 중심에 둔 한국 대학의 교육과정은 결국 필수과정이 축소된 학부제 교육체제에서 이도 저도 아닌 교육의 부실화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학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제대로 된 학부제의 실시가 아니라 과거 학과제로의 회귀이다. 대학들은 왜 진자가 아니라 후자를 선택했는가? 무엇보다 전문인 양성이란 현실적 요구가 대학교육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대학의 교원들 스스로가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라는 데 있으며 학생관 리 측면에서 기존의 학과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데 있다.

2. 전공교육 위주의 대학교육이 갖는 현실적인 문제

결국 한국 대학의 학부제, 학과제 논쟁은 무엇보다 대학교육의 목적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겠다. 한국 대학의 교육 목적이 여전히 전문 직업인으로서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학부제에 비해 학과제 교육이 보다 효율적이다. 사실 한국의 많은 대학들은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증거로 과거 2년제 대학에서 개설되었던 특수 직능인 양성 학과들이 4년제 대학에 개설되고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대학 평가 자료에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들 수 있다. 그런데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인 양성이란 교육 목적을 위해 학과제 교육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음의 몇 가지 현실적 이유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를 실현하기 힘들다.²⁶⁾

1) 높은 대학 진학률과 높은 교육비

83%에 이르는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란 현실에서 모든 대학이 전문인 양성이란 목적을 갖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유효한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인원을 전문인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시설과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위한 비용 지출에서 국가지원이 낮은 상황에서 한국 대학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등록금의 인상이다. 이는 고등교육을 위한 비용 지출에서 상대적으로 개인 부담 비율이 높은 현 상황을 더 심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인 여러 갈등을 일으킬 여지가 많다. 즉 한국 대학의 전문인 양성이란 교육 목적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잠재적 요인을 제공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대학을 보다 강력하게 통제하거나 혹은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두 가지

25)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01/e2010012617540993820.htm> (검색일 2011.03.12)

서울경제 2010년 1월 26일 기사, “관련 법규 없어 대학 재정지원 뒷전”

“2009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공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OECD 평균 1.0%보다 낮은 0.6%인 반면 고등교육 민간 부담률은 1.9%로 회원국 평균 0.4%보다 약 4배 가까이 높다”

26)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이 2008년 83.8%에서 2010년 79%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전공교육 위주의 대학교육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학 진학을 변화 추이는 다음을 참조.

<http://blog.naver.com/yihanbit?Redirect=Log&logNo=130104346899> (검색일 2011. 03.12.)

매일경제 2011년 3월 7일 기사, “대학 진학을 70% 대로 ‘뚝’”

방안 모두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늘어난 전문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교육의 질이 효과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제 취업현황은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70%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이다. 따라서 전문학사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은 중소기업에서 요청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물론 고등교육의 교육이 기업의 요구에 따를 수는 없지만 현실적 요청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과연 현재 대학들이 목적으로 삼는 전문인일까?

한국의 취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창업이다. 만약 취업률 제고가 대학이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지표라면 대학의 교육과정은 창업을 돕고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 취업률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창업을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재 대학이 추구하는 전문인 양성이란 목적과는 한참 빗나간 발상이다.

선진국 업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이다. 한국의 서비스업의 특징은 특정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역시 취업을 제고를 위한다면 대학은 서비스 관련 학과를 신설하기 보다는 다양한 서비스분야에 진출하여 적용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 대학이 추구하는 전문인 양성이란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3) 노동시장의 문화와 현실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 연수는 5.5년 이고 평균 재직기간 7년 정도, 25세부터 65세까지 약 6회의 일자리 변동이 있다. 게다가 2009년 12월 국세청의 '08년 퇴직소득 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2,565,595명 중 근속 5년 미만의 퇴직자는 86.7%라고 한다.²⁷⁾ 이러한 현실은 하나의 전문직으로 10년 이상 노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는 기업의 관행, 이에 따른 신규 대졸자의 비정규직화 또는 청년실업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신자유주의의 경제 체제의 확대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 요구는 비정규직을 보다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킬 것이다. 비록 현재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한다고 해도 노동시장에 대한 유연성의 요구는 계속해서 상존할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노동자 각자에게도 요청된다. 이처럼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문화와 현실은 특정한 지식과 능력에 고착된 전문인 보다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진화형' 인재를 요청한다. 하지만 이 역시 특정한 영역에 국한해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이란 현재 대학들의 교육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4), 전문지식의 개방성과 타당성

과거 전문인, 전문직은 해당 전문지식과 기술을 독점하고 배타적인 인증 구조를 통해 지속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학에서만 가능한 전문영역, 전문교육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현대의 전문지식은 과거에 비해 그 타당성, 즉 '유효기간'이 짧아졌다. 즉 정보지식의 빠른 순환 등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해당 분야의 인력 수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지식 그 자체보다는 전문 지식 습득 능력이 보다 중요해 진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특정한 전문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 대학이 추구하는 전문인 양성이란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27) <http://hsieong106.blog.me/90134695575> (검색일 2013. 4.20)
개인 블로그,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우리 나라 직장 환경, 평균 근속 연수, 평균 재직 기간"

<http://hsieong106.blog.me/90153431047> (검색일 2013.4.20)
개인 블로그, "한국 평균 근속기간 5년...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3. 노동 중시 이념의 한계

위에서 지적한 대로 전문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한국 대학의 교육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현실이 바뀐다면 현재의 교육목적이 타당한가? 다시 말해 고용이 늘고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면 지금의 대학 교육목적이 정당성을 얻게 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서는 현실이란 기준만으로 대학교육을 비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대학교육의 목적을 위해서는 직업노동 위주의 이념과 교육이 갖는 한계와 문제를 보다 원리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직업 노동이란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현실적 문제이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현대인의 태도는 과거에 것에 비해 현저히 다르다. 농업중심 사회에서 보였던 노동에 대한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태도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된 것은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서 비롯한다. 막스 베버는 서구 근대 자본주의 발전 기저에서 새로운 노동윤리의 역할을 잘 분석하였다.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동력을 개신교 노동윤리에서 찾고 있다. 그는, 세속적 직업 활동이 지닌 부정적 의미가 긍정적 의미로 전환하는 계기를 루터 '소명' 의식과 칼빈주의의 '예정조화설' 그리고 이것들이 가져다 준 심리적 영향(구원증명의 욕구)에서 찾고 있다. 베버는 이와 같은 개신교 교리의 영향 중 보다 결정적인 것으로 칼빈주의를 지적한다. 왜냐하면 칼빈주의야말로 근대적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기초라 할 수 있는 '금욕적 합리주의'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버 연구가 갖는 합리적 설득력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갖는 의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9세기 당시 독일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던가를 묻게 되면 베버의 연구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의 자본주의 발전은 영국과 달리 구직자들에게 의한 '위로부터의 개혁'에 힘입은 바가 크며, 영국과 달리 독일시민의 종교적 주류는 루터교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베버의 연구 의도가 자본주의 발전의 정신적 원인을 찾는 데만 있다고 하기는 무리이다. 더욱이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마지막 부분에 기술된 "강철우리(iron cage)" 운운 부분은 이러한 의심을 증대시킨다.

"청교도는 직업인이기를 바랐다-반면에 우리는 직업인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금욕이 수도원의 방에서 나와 직업생활에 옮겨지고 현재적 윤리가 지배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 금욕은 나름대로 기계적 생산의 기술적, 경제적 진전에 의존하는 근대적 경제 질서의 강력한 우주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이 우주는 오늘날 이러한 동력기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단지 직접 경제적 영리 활동을 하는 자뿐만 아니라-의 생활양식을 압도적인 강제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 마지막 화석 연료가 탈 때까지 아마 규정할 것이다. 박스터의 견해에 따르면 외적인 재화에 대한 배려는 마치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얇은 겹옷'처럼 성도의 어깨에 놓여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운명은 이 겹옷을 강철 같은 겹겹질로 만들어 버렸다. 금욕이 세계를 변혁시키고 세속에 작용하기 시작하자 이 세상의 외적인 재화는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에 대한 힘을 증대시켜 갖고 마침내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오늘날 이 정신은 그 겹겹질에서-영원히 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사라져 버렸다. 어쨌든 승리를 거둔 자본주의는 그것이 기계적으로 도태됨에 따라 더 이상 그와 같은 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28)

이에 따르면 애초 서구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 강력한 노동윤리는 화석화 되었으며 자본주의 하에서 직업인으로 산다는 것은 특정한 신념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다. 베버의 이 관찰은 '직업수행지침'으로 전락하여 과거와 같은 윤리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오늘날의 직업윤리의 현황을 예언하는 듯하다. 베버가 17-18세기 개신교들의 노동윤리를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드러낼 때 마다 19세기 당대의 자본주의 노동윤리는 그것과 같지 못하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드러

28) 막스 베버, pp.135-136

러난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둘 것인가? 베버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노동에 대한 가치부여는 노동에 대한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노동을 통해 세계를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과거의 노동윤리가 퇴화했다는 것은 세계관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베버의 우리는 근대 자본주의의 진행 과정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근대 자본주의의 노동은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 혹은 직업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공장식 기계 생산구조와 임노동 구조로의 변화는 이 차이의 핵심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노동을 조작할 필요와 여지를 높였으며 그 결과 목적의식은 분명해 졌지만 노동의 의미는 얼어진다. 또한 인위적으로 조작된 노동은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해지며 소위 직업전문교육이 등장하게 된다.

자본주의 하의 노동 구조가 이러하다면 생계 수단이란 의미 외에 노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여지는 적어지며 노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타의 문제 역시 의미 부여나 해석 등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따라서 현대 노동 구조에서는 막스 베버가 보여준 과거의 노동윤리, 즉 금욕적 노동윤리는 그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또 다시 노동, 일, 직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하게 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노동은 그 자체로만 보자면 그 어느 때나 목적이 되기 어렵다.²⁹⁾ 비록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신념의 성취, 규칙적 생활, 소속감, 성취감, 협업을 통한 공동이익의 산출 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노동은 예나 지금이나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한 수단이며 그 다음은 자유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이며 나아가 여가를 위한 것이다³⁰⁾.

한때 노동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종교 윤리의 지원으로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발전은 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태도를 오히려 후퇴시켰다. 노동은 기껏해야 일종의 기계 부품이거나 아니면 기계를 보조하는 차원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은 윤리적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닌 일정한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특별한 의미 획득 보다는 더 많은 임금과 자유시간의 확보를 선호한다. 그런데 높은 임금과 자유시간 자체로는 노동의 최고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임금과 자유시간은 또 다른 행동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노동의 목적으로서 여가 또는 행복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는 그 발전 결과에 따라 생산물의 증대와 잉여시간의 증대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므로 필요를 충족한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필요 노동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더욱이 예전의 노동윤리가 쇠락한 마당이라면 고된 노동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과거의 그 어떤 시대에 비해 앞선 물질적 여유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여가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발전된 생산력에 따른 여가의 발전, 확대는 오히려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것일 수 있다. 여기서 자본주의의 역설이 발생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본주의 핵심인 노동에서 멀어질 여유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은 그 발전의 지속을 위해 무엇보다 노동력을 일터 안에 붙잡아 둘 필요를 가진다. 이를 위한 자본의 첫 번째 방식은 노동 시간과 강도를 보다 강하게 하는 것이다.³¹⁾ 물론 그 결과로 나온 보수를 보장하겠지만 그 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 노동 외 시간은 휴식과 기본전

환에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노동 외 대부분의 시간은 노동의 위한 준비 시간으로 포섭된다.

자본의 또 다른 유인책은 노동자들의 소비 욕망을 부추기거나 그 욕망구조를 편집하는 것이다.³²⁾ 그래서 보다 많아진 소비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가 보다 많은 일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보다 많은 재화를 얻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화의 소비가 행복을 위한 것, 여가를 누리게 하는 것으로 여기게 한다. 심지어 자본은 일터에서 노동과 함께 여가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로써 자본은 행복과 여가의 자유를 직업과 일터 안으로 제한하고 이로 인해 개인은 행복과 여가에 대한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점점 더 잃어 간다.

또 다른 방식은 노동윤리(직업윤리)의 강화 혹은 미화이다. 다시 말해 노동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다. 그 중 하나가 노동 현장을 '또 하나의 가족'처럼 편하고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다.³³⁾ 따라서 '회사'는 공동체의 의미를 창출하는 곳, 배움과 발전이 있는 곳, 나아가 겸과 위로가 있는 곳이 된다. 회사가 사적인 영역의 최후 보루인 가정마저 대신하겠다는 것이다.³⁴⁾

4. 한국인의 노동 문화

구체적으로 직업노동의 문제를 국내로 돌려 볼 때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노동 시간이다. 한국의 평균 직업노동시간(대략 2200여 시간)은 2011년 기준 OECD 가입국(평균노동시간 약 1700여 시간) 중 최하위이다.³⁵⁾ 하지만 긴 노동 시간에 비해 생산효율성은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 사람들 정말 빨리 빨리, 바쁘게 일을 참 많이 한다. 일을 많이, 오래 하니까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주장도 있다. 36년간 식민지 생활에 잔인한 내전의 경험, 지독한 이데올로기 대립에 군사독재까지 경험한, 천연자원 없고 땅덩어리 좁은 나라 중 경제발전과 민주발전을 이 만능이라고 이룬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는 없다.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해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최장 노동시간을 들 수 있다.

어쨌든 그토록 열심히 오래 일했다면 한국인의 살림살이는 나아졌는가? 살림살이가 의미하는 바가 애매하고 그 지표가 다양하니 무엇이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 말들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로서 과거와 같은 노동시간만이라도 줄어들어야 하지 않는가? 한국인의 소득이 늘었다는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한국인의 노동시간이 줄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사실 대한민국 시민들이 쉬고 노는 모습을 보면 심한 구석이 있다. 최장 시간 일한 대가로 얻은 돈과 시간을 어이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일 외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개인적인 노력과 경제적 재원 그리고 자유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즐거움이다. 즐거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다양하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일과 직장도 알고 보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실제, 일과 직장과 관련해 놀거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생각 보다 꽤 많다. 사람들을 만나 식사를 해도 직장사람들, 놀더라도 직장 아유하니 직장 동호인 모임을 통해, 친한 친구도 직장동료들이다.

일과 직장은 단지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한 단순한 일터나 호구지책만은 아니다. 직책에 따라서는 가족도 주지 않는 사회적 인정과 존경까지 얻을 수 있는 즐거운 곳이다. 그러니 다른 데서 돈쓰고 시간 낭비하기 보다는 직장에 머무는 것,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사람에게는 회

29)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 정신의 화신으로 언급한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있어 일을 열심히 또는 잘한다는 것은 유능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유능함의 표현은 종교적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비록 자본주의 하에서 일이 갖는 의미가 과거에 비해 획기적이라 해서 노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은 아니다. 막스 베버, p. 23 "그의 직업 충실한 자를 보았으나, 그는 왕 앞에 서리라"(잠언 22:29)

30) 아리스토텔레스, p.408. 아리스토텔레스는 삼 전제를 노동과 여가, 전쟁과 평화로 양분된다고 보고 있으면 각각의 전자는 후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1) 조안. B. 시울라, pp.140-144. 근대적 노동 관리기법의 시작을 알린 연구서로서 1911년에 테일러에 의해서 발간된 『과학적 경영원리』는 소위 산업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노동력을 일터에 보다 오래 붙잡아 놓거나 혹은 노동강도를 보다 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노동자들이 겪고 있던 노동 강도는 테일러의 시도 이전부터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노동자의 날(May Day)의 계기가 된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의 노동자 항쟁은 격심한 노동 강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행동이었다.

32)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소위 '문화산업'이란 자본의 이와 같은 전략을 표현한 개념이다. 현대의 여가 산업(leisure industry)도 문화산업의 속한다.

33) 시울라, pp145-154.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소위 '인간관계 경영'이나 '심리학적 경영'이란 것도 결국 노동현장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한 자본의 시도들이다. 이다.

34)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또 하나의 가족'이란 회사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러한 캠페인은 시민들을 행해서는 기업의 친근한 이미지를 유포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일터와 가정의 구분을 완화시키는 심리적 효과를 갖는다 하겠다.

35) 자료에서 따라 조금 씩 차이가 난다. 2008년 미국 포브스에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357시간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http://blog.naver.com/popsyim?Redirect=Log&logNo=70032065023> (검색일 2013.04.20) 개인 블로그, "미 포브스 보도 한국인 최장 노동시간"

사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한국 사람들의 최장 노동시간에는 일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인정을 얻으려는 태도가 한 이유를 차지한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일터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직장과 함께 이제까지 누리던 것도 함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실적이 좋은 직장도 글로벌한 세계경제 구조로 인해 한 순간에 날아갈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시간과 즐거움을 차지한 직장이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근래 좋은 직장을 쫓는 데 가장 우선적 조건은 안정성인지 모른다.³⁶⁾

상황이 이렇다면 최장 노동시간이라는 한국의 노동현실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 같다. 한 마디로 우리는 일하기를 좋아한다.

5. 직업인 양성 중심의 대학 전공교육이 갖는 문제

일하기 좋아하는 한국 시민의 태도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³⁷⁾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핵심에는 한국 대학교육이 있다.

한국의 4년제 대부분의 대학의 교육과정 중 60% 이상이 전공교육이며 그것도 전문 직업인 양성을 현실적인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전문인이라 무엇인가? 말 그대로 '오로지 한 가지 일에 능숙한 사람'을 말한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서 시민은 "한 가지 일에 능숙한 자들이며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한가로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시민들에게 다른 일에 신경을 쓰게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뜨리는 것이다(플라톤, 370a-d). 이러한 시민은 오늘날로 보자면 전문직업인이다. 따라서 한국 대학교육이 플라톤적인 시민, 즉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 인제는 '생활의 달인'과 같은 특수 직업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전문교육만을 하는 곳이 아니다.³⁸⁾ 이것은 현재 대학 교육의 목적이 플라톤적 전문가 양성에만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플라톤의 이상 국가에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시민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는 수호자 시민들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이 존재한다. 그 교육의 핵심은 체육과 시가 교육 그리고 신화교육(이념교육)이다. 지금으로 보자면 이 교육은 교양교육이다. 그런데 플라톤에게 있어서 수호자 시민들은 국가의 지도자이자 권력의 주체이며 따라서 국가의 실제 주인이다. 그런데 현재 대학들이 전문 교육 외에 교양교육을 두는 것은 플라톤적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인가? 만약 그렇다면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의 학생들은 지도자 교육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가?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대학이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대학마다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대학 교육이 전문 직업교육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현실이 바람직스럽지 못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왜 교양교육은 여전히 실시하

36) 최근 안정성보다는 급여가 직업선택에서 보다 중요한 고려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이 생계유지를 수단 이외에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의식이 줄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10012508281081993&type=1&outlink=2&EVE> (검색일 2011. 03. 16)

2010년 1월 25일 머니투데이 기사. "'돈이 최고' 직업선택 기준 1위-서울시 조사... 2002년 1위 "안정성"과 순위 뒤바뀌어" 370

37)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칭찬했던 것은 한국 교육이 일과 밀접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가시적 성과와 효과에 감탄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38) 한국의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으로 총 7개이다. 각 교육기관의 목적에 대한 고등교육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28조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7조 산업대학은 산업사회에 필요로 하는 학술 또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산업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7조 전문대학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상 3개의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은 각기 다르다. 하지만 현재 3개의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은 그 차이를 상실하여 점차 전문대학으로 수렴되고 있는 듯하다.

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와 같은 현실에서 여전히 교양교육이 실시해야 할 실익이 무엇인가? 직업교육화 된 한국 대학 현실에서 교양교육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직업교육화 된 대학 현실에서 교양교육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합리적 위치는 직업교육의 보조이다. 전문직업인에게 필요한 것은 해당 직업의 기술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 교양교육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보조 역할은 무엇일까? 근래 들어 대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인성(moral character) 교육이다. 인성의 대표적으로 꼽는 덕목이 절제, 성실, 정직 등등이다. 이는 직업윤리의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100여년 전에 막스 베버가 예언적으로 보았듯이, 자본주의 하의 직업활동은 합리성이란 이름으로 이와 같은 주관적 요소들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진행한지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단지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 앞서 지적한 바처럼 자본주의 발전이 가져온 역설, 즉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노동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노동자들을 붙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학의 교양교육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 대신 교양교육이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보조 역할은 또 무엇인가? 대부분의 직업은 사람과 관련이 있으므로 인간이해는 직업노동자에게 필수적이다. 인간이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자연, 사회, 문화, 언어, 역사, 철학 등등인데 성공적인 전문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더해 합리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능력도 필요하다. 교양교육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며 상황변화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 상황에서는 대단히 합리적이다. 현재 대학 교양교육에서 강조되는 인문학 교육도 이 논리에 따르면 전문 직업교육의 보조일 뿐이다. 이처럼 직업교육화 된 대학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면 여타의 교육은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 어렵다.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보조 역할로서는 인성교육이든 인문학교육이든 제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직업교육의 보조자 역할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 대학의 교육목표와 대학교육의 직업교육화를 겨냥하지 않을 수 없다. 비판의 선언은 대단히 단순하다. "직업 혹은 일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그래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이 가질 교육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모든 수단은 목적을 잃을 때 그 존재 이유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직업을 얻어 일하는 것, 즉 노동을 한다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면 목적을 가져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동의 목표가 여가라고 한다(아리스토텔레스, 1334aII).

6. 성숙한 시민 양상을 위한 대학교육-노동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는 여가교육

여가는 노동의 목적이지만 노동의 대척점에 놓여 있다. 라틴어 Otium, 회랍어 Schole은 모두 여가(leisure)로 번역하는데 이 단어들은 모두 노동의 반대이다.(김문겸, p.53). 따라서 또 다른 노동을 위한 휴식이나, 여흥은 엄격한 의미에서 여가의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가란 즐거움 외에 그 어떤 목적을 두지 않는 행위이어야 한다.³⁹⁾ 그런데 모든 즐거움이 삶에 좋은 것이 아니기에 만약 여가가 좋은 삶을 위해서라면 여가를 통해 얻는 즐거움은 좋은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⁴⁰⁾ 그런데 여가가 노동과 반대라 해서 노동을 벗어나 단지 즐기는 것을 여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⁴¹⁾ 사실 여가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제시한 여가에 관한 주장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

39) 예를 들어 같은 운동이라도 즐기는 것 외에 목적을 가진다면 여가 활동이 될 수 없다.

40) 아리스토텔레스, 1338a, "여가는 즐거움과 행복과 복된 삶 자체에 대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노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자에게 주어진다. 노동하는 자는 아직 달성되지 않은 목표를 향해 노동하는데, 행복은 하나의 목표이며, 행복에는 고통이 아닌 즐거움이 수반되는 것으로 모두들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복에 어떤 즐거움이 수반되는지에 관해서는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저마다 자신의 성향에 맞는 즐거움을 택한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훌륭한 원천에서 나오는 가장 훌륭한 즐거움을 택한다."

41) 아리스토텔레스, 1337b33 "노동과 여가는 둘 다 필요하지만, 여가가 노동보다 더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가는 노동의 목표이므로 여가나 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놀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놀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테니까"

“인간은 공동체 구성으로서나 개인으로서나 분명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따라서 최선의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와 최선의 정체가 추구하는 것은 같다. 이미 말했듯이 전쟁의 목표는 평화이며 노동의 목표는 여가이다. 그런데 개인과 국가 둘 모두는 여가 사용에 필요한 탁월함(good qualities, excellence)을 가져야 한다. 여가와 자기 계발(cultivation)에 필요한 탁월함이 있다. 이 중 어떤 것은 여가를 사용할 때 작동하고 어떤 것은 노동할 때 작동한다. 여가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는 절제, 용기, 인내, 끈기를 지녀야 한다. (중략)

용기와 끈기는 노동에 필요한 것이고 철학/지혜는 여가에 필요하다. 절제와 정의는 노동과 여가 모두에서 필요하지만 평화와 여가의 시기(평화와 여가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왜냐하면 전쟁은 자동적으로 절제와 정의를 강제하지만 넉넉한 재산과 평화로운 여가는 사람들을 오만(insolent, overbearing)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정의와 절제가, 만사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더욱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은(더 나은) 여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것들과 함께 특히나 철학이 더욱 더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다.”(아리스토텔레스, 1334aII)

이에 따르면 여가를 위해서 일정한 탁월함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철학/지혜(philosophia/wisdom)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없는 주어진 여가는 오히려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고이다.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탁월함이 계발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여가의 교육이 필요성과 가능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⁴²⁾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여가교육의 대상은 시민이다. 따라서 여가교육은 시민교육이기도 하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에 대한 정의는 플라톤의 그것과 다르다. 플라톤에 있어서 시민은 일반 시민과 수호자 시민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교육도 차별적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수호자 교육이란 다름 아니라 지도자 양성 교육이다. 만약 플라톤의 수호자 시민 교육이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보다 고차원적인 것으로 본다면 이는 오늘날의 고등교육에 해당한다. 그런데 플라톤의 지도자 교육은 소수의 탁월한 사람의 통치를 이상화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중교육화 한 오늘날 한국 대학교육과 다수에 의한 통치인 민주국가 체제를 고려하면 플라톤의 교육 이념을 수용하기 어렵다.

이 시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따르면 시민이란 ‘치자(治者)이면서 또한 자발적 피치자(被治者)가 되는 자’이다(아리스토텔레스, 1332b12). 그에 따르면 이러한 시민이기 위해서는 탁월한 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은 다수의 올바른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자면 플라톤에 비해 보다 실득력 있는 고등교육의 이념을 제공한다 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론은 그 이념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도 현재 고등교육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정치학』에서 당대의 젊은이 교육에 대한 분분한 견해를 소개하면서 교육 목적을 ‘인생에 유용한 것’, ‘탁월함에 이바지 하는 것’, ‘고급지식’ 등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그 중 유용한 것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즉 오늘날로 보자면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전공교육에 해당될 것인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젊은이들은 유용한 것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유용한 것이라고 해서 다 배워서 안 된다. 직업(occupations)은 자유인에게 적합한 것과 자유인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양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 유용한 직업에 참여하지만 ‘직공다운(banautos)’⁴³⁾ 것이 되지 않을 만큼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인의 몸과 혼과 마음의 탁월함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데 쓸모없게 만드는 직업과 기술과 학습을 ‘직공스러운(banautos)’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몸을 망가뜨리는 모든 기술(art and craft)과 혼

42) 아리스토텔레스, 1334a40. 보다 분명하게는 다음의 확인하라 1338a9. "의미 있는 일로 여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명 배우고 교육받아야 할 것들이 있다"

43) 회랍어 banautos는 범속한 인간, 비천한 인간을 뜻한다. 아리스토텔레스, p. 428 역자 주. 영어 번역어는 mechanical

을 추구하는 일을 그렇게 불러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여가를 빼앗고 생각을 비속하게 만든다.”(아리스토텔레스, 1337a33)

아리스토텔레스의 당시에는 노예제가 있었고 그 역시도 노예를 인정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노예란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노예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시 젊은이들에게 교육하던 4가지 교육과목 grammata(읽기와 쓰기), gymnastike(체육), mousike(음악), graphike(그리기)을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grammata와 graphike를 일상생활에 쓸모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 gymnastike는 용기를 길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⁴⁴⁾

이상의 4과목은 과목명으로서만 보자면 오늘날의 교양교육에 해당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교육을 나머지 3과목에 비해 차별적으로 다룬다. 왜냐하면 당시 음악교육은 필요한 것도, 유익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것이 자유인, 즉 시민에게 어울리고 고상하기 때문이라 한다.(아리스토텔레스, 1338a30)

이처럼 교육이 유용성만을 위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철학은 그의 교육목적에서 기인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것은 시민을 ‘다스리는 자이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이며 따라서 탁월하게 교육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그의 교육목적은 탁월한 시민의 양성이리라 하겠다. 만약 현재의 대학 교육이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다수의 자유로운 시민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면 지금과 같은 특수 직능인 양성의 전문교육과정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며 전공교육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교양교육도 개선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시민의 고상함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것은 바람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오늘날로 보자면 일을 잘하기 위한 능력 못지않게 여가를 잘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민에게 일정한 정도 필요하고도 유용한 교육(직업교육)이 있어야 한다면 그 정도의 비율로 여가교육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현재의 대학교육에 응용한다면 일(직업)에 필요한 전문교육과 달리 일과는 구분되는 교육으로서 교양교육이 필요하다는 할 것 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와 같은 교육이념은 근래에 들어 소위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란 개념으로 객관화 되었다.⁴⁵⁾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교육으로서 유용한 교육, 고상함을 위한 교육 외에 미래의 시민으로 양성될 젊은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젊은이들의 교육으로 철학교육, 인성교육 그리고 예체능교육을 제시한다. 지금으로 보자면 역시 교양교육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 중 특히 체육교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포츠가 여가 생활에서 중요해진 현실에서 그 어떤 대학교양과목 보다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만큼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는 것이 체육교육부분이기 때문

4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체육 교육의 목적은 혼을 위한 것이거나 탁월함을 위한 것이다.

플라톤, 403a 그리고 410c. 아리스토텔레스, 1337b23.

45) 여기서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의 본래 이념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중요 대학 중에 하나인 하버드 대학의 경우, 학부생의 교양교육의 목적을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으로 두고 있다. 2007년 2월 하버드의 TFGE(Task Force on General Education)가 Faculty of Arts and Sciences에 제출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버드 교육은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이다. 자유교육이란 시국적, 직업적 주제의 타당성이나 직업적 유용성을 염두해 두지 않고 자유로운 탐구정신으로 실행하는 교육을 말한다. 자유교육은 인간과 자연세계에 관한 인식을 증대시킨다. 자유교육은 학생들의 신념과 선택에 대해서 보다 성찰적이게 하며, 그들의 견제와 동기부여에 관해서 보다 비판적이게 하며, 문제해결에서 보다 창의적이고 주위의 세계에 관해서 보다 통찰력 있게 하며, 그들의 생활에 개인적, 직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쟁점들에 관해서 자신들이 더 능력을 가지고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대학은 평생 동안 당면하는 시간과 정력의 제약으로부터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중략) 자유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전문대학원은 이러한 상황을 가르치지 않기 않으며 고용주들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대부분의 일반대학원 과정도 이러한 것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오히려 학생들을 탈 자유교육화하며 학생들의 전문직업인으로 사고하게 훈련시킨다.”

김지현, 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교육학회 2010학년도 춘계심포지움 자료집, 131쪽 재인용.

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두 체육교육을 중요시 여겼지만 그것은 단지 몸을 위한 교육이 아니었으며 혼을 중심에 둔 교육이었으며⁴⁶⁾, 이 혼을 위한 교육도 결국은 탁월함(덕)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플라톤은 체육교육이든 예능교육이든 조화를 강조하였는데 특히 시가와 철학이 빠진 체육교육을 받는 사람은 “논의를 싫어하고(mislogos), 시가를 모르는(amousos) 사람이 되어 말을 통한 실득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모든 것과 관련해서 폭력과 난폭에 의해 이루어 할 것이며, 무지와 졸렬함 속에서 상스럽고 무례하게 살아갈 결세”라고 평가한다.(플라톤, 411e) 또한 체육을 통한 혼의 단련(기개) 없이 이루어진 시가교육은 사람을 유약하고 신경질적으로 만든다고 지적하기도 한다.(플라톤, 411c)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철학교육이 피교육자들에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플라톤은 체육에 대한 지나친 관심(체육의 한계를 넘은 몸에 대한 지나친 보살핌)은 가정경제 관련해서도 공적생활에서도 여러 문제를 준다고 하면서(플라톤, 407b), 철학교육을 받는 데도 심각한 장애를 준다고 한다. 즉 플라톤에 따르면 체육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모든 종류의 공부나 연구 또는 자기 성찰을 머리 아픈 것으로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일로 여기며 철학공부와 같은 것은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나쁜 것으로 여기도록 한다는 것이다.⁴⁷⁾

이와 같은 철학자들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주요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체육교육은 철학이 부재하다고 할 만큼 대체로 이론보다는 실기 중심인 데다가 교수 역시 대부분 외래 강사로 이루어져 책임교육의 정도가 그 만큼 낮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수강하는 학생들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많은 학생들이 실기 위주의 체육을 교양과목으로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점 이수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7. 결론-성숙한 시민 양성을 위한 대학의 인문교양교육

전공교육을 위주로 삼는 한국 대학교육의 현실에서 교양교육은 어떠한 목적을 가짐으로써 학문의 독자적 영역을 지키는 동시에 바람직한 고등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을까?

현재 종교적 이념에 의해서 설립된 사립 대학들 가운데 설립이념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차별적 교육은 대개 교양교육과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교양과목들의 보편적 교육 목적은 소위 ‘인성교육’으로서 건전한 인성(moral character) 형성에 두고 있다. 그런데 대학의 교육목적이 전문 직업인을 양성에 있다면 그러한 인성교육 조차 한갓 직업을 위한 수단 내지는 보조교육으로 전락하기 쉽다. 따라서 건전한 인성이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교육되기 위해서라도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는 현실적 교육목적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학부교육 과정에서나마 지나친 전공교육을 지양하자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교양교육의 독립적 지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들은 학과제도의 회귀하기 보다는 지금의 학부제를 본연의 학부제 교육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당연히 전공교육보다 교양교육이 중요해 질 것이다. 이에 따라 교양교육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대학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전공교육 위주의 전임교수의 배치에서 교양교육으로의 전임교수가 배치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양교육을 통해 전문분야 간의 다양한 연계 교육 및 통합 과정이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특정한 분야의 전문 학위를 가진 교수들 역시 학문간의 연계를 위해 연구하며 그에 따라 필요한 색다른 교수법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전공교육과 연구 위주로 이루어져 온 종래의 교수평가제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대학들은 교양교육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충실히 교육 현실에 반영할 때 지나친 전공교육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교육의 충실화를 가져 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교양교육이 시민의 성숙을 목적에 둔 인성교육이라면 당연히 이를 주도할 학문은 인문학이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인문학으로서 철학, 문학, 역사 영역은 시민교육을 위해서도 대학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46) “몸이 자신의 ‘훌륭함’에 의해서 혼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훌륭한 혼이 자신의 ‘훌륭함’에 의해서 몸을 최대한 훌륭한 것이게끔 만들어 주는 것 같으니” 플라톤, 403d

47)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공부나 고찰 또는 자기 수련도 힘들게 만든다는 걸일세. 그것은 머리가 빼개질 듯한 아픔이나 험기증을 언제나 의심케 하고, 이게 생기는 탓을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ia)’에서 찾게 하여, 이런(지혜에 대한 사랑의) 면에서 ‘훌륭함’이 수련되고 시험될 경우에는, 모든 면에서 방해가 되네, 언제나 그것은 자신의 질병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며, 몸에 대해 괴로워하기를 결코 그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일세” 플라톤, 407c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문경(1996), 『여가의 사회학』, 서울: 한울출판사
막스 베버(1904), 『프로테스탄트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2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천병희 역, 서울: 숲, 2009
조안.B. 시올라, 『일의 발견』, 서울: 다우, 2005
플라톤, 『국가·정치』, 박종현 역, 서울: 서광사, 2005

2. 논문:

신의순, “한국 대학의 기초교양교육체제와 당면과제”, 『제 4회 서울대학교 기초교양교육 국제 학술대회 자료집』, 2008
김지현, “교양교육의 목적으로서 ‘삶과 학문의 연계’와 그 실현원리: 하버드대학 새 교양교육(New General Education)을 중심으로”, 학교양교육협의회/한국교양교육학회 2010학년도 춘계심포지움 자료집

3. 웹페이지: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6/h2009062302224776070.htm> (검색일 2011. 03.10)
한국일보 2009년 6월 23일 사설, “언제는 학부제가 최고라고 하더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087451> (검색일 2011.03.10)

연합뉴스, 2010년 1월 24일 기사, “학과 모집’ 대세…학부제 폐기처분되나”,

http://www.pncreport.com/oecd/life.html?mode=view&code=h2b_OECDlife&uid=6.00&pnt=6&g=&lm=01 (검색일 2011.03.11)

OECD리포트, OECD 통계: 교육(OECD Factbook2010) [해설]한국, 사적 교육비 부담률 OECD 1위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01/e2010012617540993820.htm> (검색일 2011.03.12)

서울경제 2010년 1월 26일 기사, “관련 법규 없어 대학 재정지원 뒷전”

<http://blog.naver.com/yihanbit?Redirect=Log&logNo=130104346899> (검색일 2011. 03.12.)

매일경제 2011년 3월 7일 기사, “대학 진학을 70% 대로 ‘뚝’”

<http://hsieong106.blog.me/90134695575> (검색일 2013. 4.20)

개인 블로그,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우리 나라 직장 환경, 평균 근무 연수, 평균 제직 기간”

<http://hsieong106.blog.me/90153431047> (검색일 2013.4.20)

개인 블로그, “한국 평균 근무기간 5년...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http://blog.naver.com/popsyim?Redirect=Log&logNo=70032065023> (검색일 2013.04.20)

개인 블로그, “미 포브스 보도 한국인 최장 노동시간”

<http://stock.mt.co.kr/view/mtview.php?no=2010012508281081993&type=1&outlink=2&EVEC> (검색일 2011. 03. 16)

2010년 1월 25일 머니투데이 기사, “‘돈이 최고’ 직업선택 기준 1위-서울시 조사... 2002년 1위 “안정성”과 순위 뒤바뀌어”

철학/02/논평문/

“전공교육 중심에서 시민교육으로 -인문 교양교육으로서의 기독교 대학의 역할”을 읽고

李國運 (한동대 교수, 헌법/법사회학)

1. 최한빈 교수님의 논문을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전공교육 중심에서 시민 교육으로 대학교육의 초점이 옮겨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기독교대학이 선봉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논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소위 ‘자유교양’으로서 인문교양의 정당성을 주장하시는 점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전체 아래, 여기서는 기독교학회의 논의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약간의 토론편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학부제와 학과제를 둘러싼 지난 20년 동안의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변동을 인문교양교육의 강화라는 대의와 관련하여 직접 연결시키는 것이 과연 정확한가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런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이후의 학부제 논의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이 대학교육에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든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불황과 국가회귀의 분위기에서 전공교육의 강화가 학과제 회귀로 드러난 것이라든지 하는 논의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일종의 교육정치경제학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최고수님의 논의처럼 노동과 여가에 관한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를 내세우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최고수님의 주장처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철학에 근거하여 자유교양교육으로 대학의 학부교육을 규정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학교육의 체계를 설계하거나 대안을 모색하는 것과, 현재 벌어지는 대학교육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때문에 이러한 ‘분석 차원’에서는 좀 더 역사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전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밀어닥칠 대학교조조정작업에서 어떤 대학은 인문교양교육으로 살아남고, 어떤 대학은 전문직업교육으로 살아남아야 할 것 같기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 또 한 가지 의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교양철학’에 입각할 때, 기독교대학과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조금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최고수님의 논문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매우 균형잡힌 이해를 제시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대, 이로부터 출발하여 기독교 사립대학이 자유교양교육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한 철학적 논거로 나아가는 점에 있어서는 솔직히 논문 내에 어떤 단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유교양철학’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만, 이 논문은 그에 더하여 그러한 주장이 왜 기독교적인지 또는 기독교대학이 왜 그러한 주장에 동참해야 하는지 까지를 논증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의문은 제가 논문의 목표와 범위를 잘못 이해해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 그렇다면 교정을 부탁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노동과 여가의 관계에 관한 의문입니다. 논문에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읽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노동의 목표를 여가로 놓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과 여가 각각을 자목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논문의 지향인지, 나아가서는 그 중 어느 쪽이 어떤 논거로 더욱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 약간의 해명이 더해지면 논문의 메시지가 더욱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최고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글이 대학 교육 일반이나 기독교대학이 대학교육 일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기독교대학 내부의 정체성 논의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점에 관해서도 최고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으면 합니다.